

## 박태일 시와 장소사랑(topophilia)

하 상 일\*

### 차 례

1. 들머리
2. 지역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 성찰
3. 일상적 아픔과 소외의 지리학
4. 죽음 이미지와 실존적 공간성
5. 마무리

### 1. 들머리

문학과 지리학이 서로 만나면 과연 어떤 풍경과 의미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삶과 주관적 의식을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문학과, 인간이 딛고 서 있는 땅의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성격을 탐구하는 지리학의 만남은 너무도 낯설어 쉽게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제간 비교연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오늘날의 학문 풍토 속에서 문학과 지리학의 만남은 분명히 새로운 형상과 인식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현대 지리학의 방향이 지리적 환경 안에서 인간의 의식작용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리적 세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을 지향

\* 부산대학교 강사

함으로써 문학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 인간의 지리적 행동,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인간 이해에 이르고자 하는 지리학의 새로운 방향이 문학의 지향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sup>1)</sup>

작가는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다른 사람의 관심이 닿지 못하는 자연이나 환경의 어떤 특정한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마음의 눈으로 환경을 관찰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에 의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을 기술한다. 또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험은 물론 다른 사람의 경험도 소중하게 수용하므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독자는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를 통해서 작가의 마음 속에 스며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지리학적 상상력을 통한 시읽기는, 시인이 세계(환경)와 합일을 이루는 내면 풍경, 즉 서정적 비전을 발견하는 새로운 해석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sup>2)</sup>

박태일은 오늘의 시인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지리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작업을 하고 있다. 그에게 지리학적 상상력은 세상을 직시하

- 1) 인간주의 지리학이 사람과 장소의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장소감(sense of place), 지경의(geopiety), 또는 장소사랑(topophilia)과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 경험이나 장소감을 중시하는 그 특유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장소연구야말로 삶의 연구가 된다. Asa Briggs, "The Sense of Place", *The Quality of Man's Environment, Voice of America Forum Series*, 1975, 96면. (박태일, 「김영수 시와 문학지리학」,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300면에서 재인용).
- 2) 경험은 사람들이 실재(實在)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양식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양식들은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보다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감각에서 능동적인 시각적 인지, 상징화라는 간접적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간은 이러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을 친밀한 공간으로 바꾸게 되는데, 즉 낯설은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찬 구체적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친밀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역에 대한 느낌 또는 의식, 즉 장소감을 가지게 된다. Yi-Fu Tuan(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23~38면 참조.

고 이해하고 비판하는 시적 전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의 문제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변주해 내고 있다.<sup>3)</sup> 즉 지나온 역사지리의 은폐된 진실을 찾아냄으로써 사라지고 잊혀져 버린 가치를 새롭게 복원하고, 소외된 계층과 인물의 삶과 터를 온전히 감싸안음으로써 동시대적 고통을 함께 견뎌내며, 문학 본래의 원형적 공간과 상상력의 토대인 죽음의 실존성을 찾아나섬으로써 구체적인 장소사랑(topophilia)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속에서 인간의 숨결을 찾아내고 문학의 진정성을 발견하려는 것이 그의 시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문학지리학<sup>4)</sup>의 뚜렷한 지향점이다.

박태일의 문학지리학적 상상력이 찾아가는 곳은 언제나 인간의 문제가 어두운 그림자로 남겨져 있는 오래되고 무거운 장소들이다. 그래서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변방의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아픔의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절망과 희망의 경계를 맴도는 도식적 틀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아픔이 뿌리깊게 자리한 소외된 역사와 인간의 중심에 서서 그 속에 억압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문명적 가치

- 3) 그는 지금까지 네 권의 시집을 출간한 바 있는데, 『그리운 주막』(1984), 『가을 악견산』(1989), 『약속 개썩』(1995), 『풀나라』(2002)가 그것이다. 그의 시에는 지역의 삶터에 대한 관심과 우리말의 감각과 리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이 중에서 특히 전자에 주목하여 그의 시에 나타난 장소사랑의 의미를 지리학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하 시를 인용할 때는 작품명만 밝히고 시집명은 언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 4) 문학에서 장소경험, 또는 장소상상력은 본질적이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장소경험이 본질적인 경험이며, 장소가 사람에게 정채감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나 지역성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문학은 특정 장소나 지역에 대한 체험이나 이미지, 공공의 장소감이나 그것에 대한 통·공시적 감각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다 새로운 뜻을 덧붙이기도 한다. 지리학적 상상력, 곧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감수성이야말로 문학창작이나 연구에 필수영역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문학과 지리학 사이의 연관을 따지는 문학지리학이 제 몫을 다해왔다. 문학지리학은 크게 말해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해설로서, 또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박태일, 「한국 근대시와 금강산」, 앞의 책, 242면.

에 의해 쉽게 훼손된 인간의 상처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는 신생(新生)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난 터에 대한 사랑과 문학 지리학의 세계, 즉 지리학적 상상력의 시적 전략은 우리 문학의 진정성과 정신사적 토대를 찾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시가 새롭게 열어가야 할 의미심장한 가능성임에 틀림없다.

## 2. 지역과 현실에 대한 역사적 성찰

지역자치제를 실시한 이후로 우리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역'이라는 화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 역시 두드러진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는데, 이것은 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층위에 놓여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80년대의 지역문학운동이 중앙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과 문학이라는 보편성의 변증법적 결합을 통한 '운동성'의 차원을 드러낸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지역문학은 중앙에 대한 비교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난 '지역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로서의 정체성과 독자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up>5)</sup> 이는 “국가 단위의 행정, 문화 인식과 논리에서부터 벗어나 바람직한 지역 가치를 널리 찾아 섬기며, 그것을 지역공동체의 나날살이 속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무엇보다 앞세우는 경향을 일컫는 말”<sup>6)</sup>이다.

이런 점에서 박태일의 시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애정과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문학지리학의 시각이나 방법을 통한 그의 시쓰기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감수성의 확장을 이루어 지리학적 상상력으로 나아가고, 이는 지역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됨으로써 지역문

5)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115~172면 참고.

6) 박태일·허상일(대담), 「잃어버린 시문학사의 빈 틈」, 『오늘의 문예비평』, 1998년 봄호, 19면.

학 내지는 문학지역주의의 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지역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7)</sup> 그의 시의 대부분이 부산·경남지방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장소체험을 지리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장소체험이나 여행체험은 많은 시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시적 전략이 되고 있지만, 이처럼 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리학적 상상력의 심화는 우리 시단에서 그리 흔한 광경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시가 지닌 생명력과 개성적 힘은 남다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박태일에게 있어서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은 소외된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그는 옛 가야 왕국의 역사지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사를 둘러싼 역사지리학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그가 지향하는 가야 왕국의 역사는 우리 고대사에서 삼국의 역사에 비해 상당히 소외되고 묻혀 버린 변방의 역사이다. 소외되고 잊혀진 것에 절대적 관심을 기울이는 그의 시쓰기가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가야사를 소재로 하여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효율과 편의라는 허울 아래 지역성을 망가뜨리는 제도와 인습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는 대항문학으로서의 지역문학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sup>8)</sup>하는 그에게 있어서, 현재 김해지방을 중심으로 한

- 
- 7) 그가 주축이 되어 1997년 여름 창간된 『지역문학연구』(경남지역문학회)가 현재 7호까지 나왔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 문학사에서 쉽게 잊혀져버렸거나 폄하되어 온 부산·경남 지역의 문학인들의 작품에 대한 서지적 연구, 전기적 연구, 문학사적 자리매김 등 지역문학연구의 본보기를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 8) 효율 있는 통치와 편의를 위해 지역을 망가뜨리고 항상적 권력과 자본을 좇아온 국가장치와, 그 국가의 대리자가 되거나,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 발을 뻗을 수 없는 이 날아다니며 이른바 '보편적'이니 무어니 떠들어댐으로써 그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나눠 받아온 관변문학이나 연구주의 문학이 지역문학일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문학은 민족문학일 수 있으나, 바람직한 민족문학은 국가문학을 뛰어 넘는 자리에 놓입니다. 지역문학 또한 민족문학의 한 영역이며, 하위분야일 수는 있어도 국가문학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태일, 앞의 대담, 24면.

가야사에 대한 재발견과 재해석은 가장 중요한 시적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첫 시집 『그리운 酒幕』에 실린 「駕洛記」 연작은, 가락국의 역사지리를 따라가면서 도도한 역사의 횡포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간 우리 민족의 아픔과 어두운 현실의 모습을 실감있게 들추어 내고 있다.

섬들이 흩어져 비를 피했다.  
防風林의 낮은 키 너머  
남도식 발성으로 뒤집혔다 되짚어 가는 파도  
사내들은 배를 띄워 먼 바다로 떠나고  
사내가 빈 마을, 갯가 마을에는  
바다가 쳐들어와 오래 머물다 갔다.  
虛氣가 지면 푸른 허기  
물으로 나가는 산길에는  
슬픈 女子들의 치마끈이 마구 밟혔다.

- 「駕洛記·8 - 加德島」 전문

이 시는 “푸른 허기” 때문에 “바다”로 상징화된 폭력성 앞에 여지없이 “슬픈 女子들의 치마끈이 마구 밟히는” 어두웠던 지난 역사의 상처가 가슴 아프게 드리워져 있다. 그나마 “防風林”이 되어 섬을 지켜주던 “사내들은 배를 띄워 먼바다로 떠나고”, 섬 여자들마저 하나로 결속되지 못한 채 “흩어져 비를 피하는” 당시의 상황은, 남쪽 끝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왜적에게 수시로 짓밟혀야만 했던 ‘가덕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뼈아픈 수난사를 형상화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잊혀진 역사지리를 따라가면서 그곳에 묻혀 있는 아픔을 현재의 의미로 재장소화하는 그의 시쓰기는, 민족의 아픔을 도외시하고서는 올바른 문학을 할 수 없다는 울골은 민족문학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닷가 마을 하나가 소금기로 말라가는”(「駕洛記·5 - 柳佳里 조개무덤」) 풍경이나 “安骨浦 아낙들은 서둘러 불을 쬐고”(「駕洛記·1 - 安骨浦 倭城」)에서도 역사의 희생제물이 되어 평생을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이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鰲洛記」 연작에서의 같이 가야사를 소재로 한 「폐왕을 위하여·1」은, 언제나 역사의 뒤편에서 권력의 횡포에 짓눌려 희생당한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을 형상화한 보편적 역사지향과는 달리, 격동의 역사에 떠밀려 힘없이 사라져간 “폐왕”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는 그의 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역사적 성찰이 지배/피지배의 이원적 계급대립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편길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고 잊혀져간 모든 것들을 편견없이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힘든 일이다 새삼  
 나라 이야기 끝자락을 마무리하기란  
 감실에 묻은 옷대 서책에는 더  
 기댈 길이 없다 꺾밥 긴 내림에  
 편편한 발바닥이 늘 부끄러웠던 폐왕  
 (중략)  
 폐왕 나드는 길 사람들이 돌을 쌓고  
 너구리 누린 오줌을 갈겨도  
 어금니 마주쳐 골골 날다람쥐를 부르며  
 붉은 여울들로 책력을 짐작한다 폐왕

- 「폐왕을 위하여·1」 중에서

김해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금관가야 마지막 임금 구형왕의 돌무덤을 소재로 한 이 시는 “붉은 여울들로 책력을 짐작”할 만큼 이미 역사의 뒤편길로 깊숙이 사라진 “폐왕”에 대한 연민과 추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는 왕의 신분이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해 “늘 부끄러웠던 폐왕”의 무덤 앞에서 “너구리 누린 오줌을 갈겨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권력과 제도에 길들여진 현실의 허위성에 대한 경종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신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고 쫓겨났던 비운의 왕 고려 의종을 소재로 한 「폐왕을 위하여·2」 또한 역사의 횡포에 짓눌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 인물에 대한 형상화라는 점에서 변방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그의 시적 지향은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시적 지향은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소외되어 온 잘못된 역사의 지도를 올바르게 복원함으로써, 정체된 역사 위에 편안하게 군림하려는 오늘날의 문학적 풍토를 성찰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중심의 논리에 길들여진 지배이데올로기의 허위성으로부터 벗어나 변방의 어둠과 소외를 통해 문학지형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문학의 열린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찾고 있는 역사의 풍경은 이름 없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혹은 맴돌다 사라져간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이 빚어내는 한(根)의 형상화에 다름 아니다.

오호라 해와 달 돌아들어 삼동 추워 다 건너서 뒷메 뽕밭은 작년 오늘 같  
사온데 의젓하던 그대 모습 다시 불길 아득하네 그대 신앙하고 됴됨이 단아  
하옵기 백년해로 바랐더니 문득 얻은 병세로서 여러 해 고생할 제 어느 제  
나 떨치실까 때라 때라 조린 마음 신명도 애닦도다 달은 누웠다 일어서고  
해는 빠졌다 되솟는데 미만욕십 우리 내외 홀로 슬픔 웬일인고 눈 위에 내  
린 서리 흥년에 윤달이라 온 들이 적막하고 일마다 허무하다 먼 산 여우비  
는 그대의 기척인 양 목마를 때 물 생각 듯 이 아낙을 생각하는가 지난 고생  
담복 지고 오는 설움 생각하니 눈물이 개울 내고 한숨이 울을 쥐네 오장간  
장 녹는 심회 하나하나 다 못 하니 어이어이 박복한 이 아낙 한잔 술을 받  
겨 드시옵소

- 「박복한 이 아낙은 네 번 절하고」 중에서

죽은 남편을 향한 애닦은 마음을 제문형식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이 시는, “박복한” 우리 민족의 “허무”한 삶과 “설움”의 깊이가 “눈물이 개울 내고 한숨이 울을 쥐”는 아픔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구구절절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서정적 화자인 “박복한 이 아낙”의 모습은 언제나 슬픈 운명을 가슴 속 깊이 감내하며 살아왔던 우리네 여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무수한 역사의 폭력과 지배권력의 통제 속에서 “어이어이” 통곡만 할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민중들의 총체적 형상을 담아낸 전형적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지아비를 잃고 김해장에서 고구마 줄거리를 파는 고달프고 남루한 과수대의 모습을 형상화 한 「김해군 주촌면 내삼 관동대」, “가난한 세간 다 뒤집어 놓고/꺼이꺼이 목메이는 사내의 破産”을 그린 「축산항·3 - 新基洞」, 난리통에 영감 아들 다 보내고 “가슴팍 해쳐놓고” 회리밤을 깎는 「의령대」의 모습은, 그가 바라보는 역사의 시선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즉 시인은 구체적 장소와 그곳에 붙박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어두운 삶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문학지리학적 상상력을 더욱 넓혀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체된 지배이데올로기의 허위성에 대한 대항의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뚜렷한 방법에 다름 아니다. 그의 시에 자주 나타나는 토속언어의 발굴이나 4·4조 가사체 리듬의 빈번한 채용 등은 바로 이러한 굴절된 역사에 대한 연민과 추모의 정서를 넘어서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구체적 실천을 모색하는 뚜렷한 기법적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 3. 일상적 아픔과 소외의 지리학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역사는 대체로 중심의 역사였고 권력의 역사였으며 부르주아의 역사였다. 우리에게 민중의 역사는 아직까지도 그들에 가려진 뒷골목의 수난사 정도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경직성에 짓눌리고 보수로 위장된 권력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문학은 언제나 제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전경화된 것만을 문학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문학이 지나쳐온 길과 땅 그리고 삶의 기록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왜곡과 무분별한 재단 앞에서 가서는 안 될 곳이 너무도 많았고, 알아도 모른 척 넘어가야 했던 일이 다반사였으며, 쓸 데

없는 지엽적 논의라는 완고한 편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일쑤였다. 결국 이러한 왜곡과 억압의 굴레는 진정한 문학의 의미생산을 애초부터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박태일의 시는 중심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중심의 역사가 저질러 놓은 온갖 횡포로부터 멀리 달아나버린, 때로는 힘없이 쫓겨나 버린 '소의'의 지역을 찾아 나선다.

밤이 되어 겨울이 깊다.

바람도 이따금 앞산 쪽으로 꺾기고

때로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놀이인 양

通行禁止의 어두운 밖으로 따라 나서면

저토록 많은 삶이 입까지 이불을 당겨 잠드는구나.

숨어라 쪽쪽, 노오란 외등의 불빛 아래 마르고 닳는 잠

이제 잠든 너는 더 잠들지 않고, 가끔

가두어 키우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비져 나오는 거리

철독 너머에는

ㄱ字로 몸 구부린 내 이웃의 處所가 있다.

- 「자갈마당」 전문

이 시는 첫시집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그의 시가 '소의'의 지리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시 전문 어디에도 슬픔의 축수를 건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 그저 담담한 겨울밤의 풍경이 "자갈마당"이라는 구체적 공간과 어우러져 형상화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객관적 거리감이 오히려 '소의'의 아픔을 더욱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다. "저토록 많은 삶이 입까지 이불을 당겨 잠"들고 아이들을 "가두어 키우는" "ㄱ字로 몸 구부린 내 이웃의 處所"는, 더 이상 대화도 없고 관심도 애정도 모조리 사라져 버린 불모의 공간으로 고통만이 들끓는 자리인 것이다. 이곳은 아마도 "노오란 외등의 불빛"이 선명하게 드리워진 유곽의 거리쯤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그는 비로소 "이웃"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거리에서, '나'가 '너'를 외면하는 거리에서, 그의 시가 진정으로 무

엇을 노래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 아래 구정물이 새로 얼기 위해 모여들 때  
 때로 택시가 올라와 웅웅직직 더 위 절까지 들어가고  
 막들벼랑 집들이 두 겹 세 겹 겨운 허리 버티며  
 일 나간 딸들 기다릴 때  
 큰길에서 20분 서동 마을회관 담배집  
 무더기 무더기 연탄재 밟고 딱지 펴서  
 비행기를 접어 날릴 때 그리고  
 어두운 능선 따라 몇몇 장이 서고 걸히고  
 하는 일들이 그리울 때 천천히  
 너삼대 서거이는 소리에 귀를 비비며  
 숙여 걷던 진눈깨비.

- 「진눈깨비」 전문

인용시는 우리의 현실 곳곳에서 어렵잖게 볼 수 있었던 달동네의 풍경  
 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계단 아래 구정물”, “막들벼랑 집들이  
 두 겹 세 겹 겨운 허리 버티며/일 나간 딸들을 기다릴 때”, “무더기 무더  
 기 연탄재” 등은 너무도 전형적인 민중들의 삶터의 풍경이어서 크게 새  
 로울 것이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에 나타난 시인의 태도가 대상  
 을 주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묘  
 사에 치중하고 있는 점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9)</sup> 그의 시에는 과장  
 된 포즈나 거짓 수사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

9) 박태일 시의 공간, 혹은 지명은 '풍경의 묘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노래로서  
 의 음악성과 더불어 풍경의 시적 형상화가 그의 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적  
 기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소 제시 - 풍경의 묘사 - 생각 및 정서  
 의 노출'로 이어지는 시상전개방식은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전통적 시작법을 계  
 승하고 있는 듯하지만, 풍경의 묘사가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장소'와 '생각 및  
 정서'라는 두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독특한 시적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오형엽, 「소리의 음악과 햇살의 광학」, 『풀나라』 해설, 문학과  
 지성사, 2002, 123~125면.

게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려 하고, 그의 언어로 당당하게 세상의 방식과 맞서려 한다. 세 번째 시집 『약쑥 개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소외의 지리학’은 보다 구체화되고 분명한 주제로 자리잡게 되는데, 세상 곳곳의 길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소외’의 의미는 더 이상 관념의 실체가 아니라 감각으로 구체화된 경험의 실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젠가 요새처럼 지역 자치니 뭐니  
돈과 힘을 새로 나누어 놀아보고 싶었을 세상  
민의원 선거에 나섰던 아버지 어느 후보와 달리  
그 마을로 들어가 손도 잡고 술잔도 돌려  
문춘 물표를 얻으셨단 이야기 결귀로 들었던  
까까머리 그날들도 스무 해나 더 지나

(중략)

진보정당 진보적인 사람 틈에도 끼이지 못하고  
기층민중 인민대중 그 어느 말뚝에도 들지 못하지만  
텔레비 있는 방과 없는 방  
어찌어찌 잘 통하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살고  
이 예수 저 부처 나라 안 어느 땅보다  
섬기는 집들만은 많은 곳

- 「사슴섬·2」 중에서

「사슴섬」 연작은 저주받은 천형의 고통을 안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문둥이섬 소록도에서 그가 보고 느낀 아픔을 그리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느 “틈에도 끼이지 못하고” 선거때만 되면 타락한 인심의 뒷에 걸려 철저하게 이용당해야만 했던,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믿기보다는 “이 예수 저 부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슴섬” 사람들의 모습에서, 시인은 우리가 진정으로 “손도 잡고 술잔도 돌려”야 하는 참이웃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문둥이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슴섬·1」의 정경과 “파도발 고랑마다 봄멸치 들고/물안개 머리둔 물 쪽에는 장닭 울음 소리 여물었겠다”(「사슴섬·4」)는 희망의 목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누리고 “사슴섬에 사슴이” 힘차게 뛰노는, 즉

인간과 자연(세계)이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꾸는 자의 내면 풍경인 것이다.

「용호농장」 연작 또한 닭똥 냄새와 더불어 살다가 “닭똥 아래 묻힌 그대”, 즉 문둥이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슴섬」 연작과 같은 맥락에 놓이는데, “똥이 하얀 날짐승들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마주하면서, 그는 “누런 똥이 될 바다장어 흰 살 씹으며” “누런 똥 누는 사람살이”의 동질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중심의 논리에 꺾여 여기저기 소외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형상화함으로써 그들의 가슴 깊숙이 묻혀 있는 한의 응어리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시적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대결의 논리가 아니라 ‘나/너’가 새롭게 손잡는 참된 화해의 몸짓이다. 다시 말해 중심의 논리에 무조건적으로 대항함으로써 그것을 송두리째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과 소외된 지역이 함께 어우러져 경계가 무화되는 화합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 4. 죽음 이미지와 실존적 공간성

“병과 죽음에의 모든 관심은 단지 삶에 대한 관심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는 토마스 만의 말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의 문제를 새롭게 환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이어주는 원형적인 곳으로의 복귀라는 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삶과 죽음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맥락 속에 놓인다. 하지만 철저히 현세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오늘날의 변화된 지형 속에서 삶과 죽음은 너무도 동떨어진 이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삶과 죽음의 분리는 허무의식을 조장하여 인간의 모습은 점점 더 황폐하고 절망적인 풍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태일의 시는 죽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달아나버린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 속에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는 죽음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문제삼고 죽음에 대한 친화력이 오히려 삶을 실천하는 활동적인 힘이 된다는 신념을 완곡하게 드러낸다. “죽음은 늘 턱없이 넘치려 하는 생각이나 부풀리고 싶은 느낌을 다독겨려주는 힘이 있다. 그 죽음도 이렇게 나적나적 소리내며 사람들 사는 터로, 길로 비집고 흘러내리는 경우에라”라고, 그는 두 번째 시집 뒷표지에서 죽음의 현재적 의미와 친화성을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화두는 첫 시집에서부터 줄곧 의식의 한켠을 흐르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힘이다. 그는 “죽음”의 길을 깨달아 삶을 완성하려는 “미성년”의 모습으로 자연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산과 들이 한가지 모습으로  
무덤을 이루어 있는 강안에 서면  
(중략)

강은 巡禮  
눈 들면 사라지는 먼먼 마을의 어두움도 따라나선다  
길 잘못 든 한 아이의 발소리도 들리고,  
산이 버린 산  
사람이 버린 사람의 白骨이 거품을 게워내는 것도 보인다

죽음이란 온갖 낮은 죽음과 만나  
저들을 갈대로 서 있게 한다  
실한 발목에 구름도 이제  
목넘처럼 하얗게 죽는다

- 「未成年의 강」 중에서

시인의 등단작(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이기도 한 이 시는, “산과 들이 한가지 모습으로/무덤을 이루어 있는 강안”에 서서 “어두움”, “아이”, “산”, “백골”, “갈대”, “구름”이 “목넘처럼 하얗게 죽는” “미성년의 강”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인은 인간의 죽음을 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땅에 떨어져 죽는, 또는 냇물이 강물로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자연 순행의 이

치를 통해 발견하려 한다. 이처럼 그의 시에서 죽음은 “물”의 이미지를 통해 친숙하게 전달되고 있는데, “바위귀에 하얗게 어깨를 털어 버”(「九天洞」)라는 여울, “키운 자식 모래무지처럼 물밑에 묻고 난 애비가/하릴 없이 그물코 사이로 물비늘을 뜨고 있”(「投網」)는 모습, “어디로 가나 고여 지새는 一家/이냥 작아지는 무덤으로 차례 누워”(「仙洞 저수지 - 竹枝詞」)있는 풍경이 바로 그것이다. “물”은 삶과 죽음, 즉 시작과 끝이라는 이원적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원형적 공간으로, 박태일의 시에 나타난 “물”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 속을 흐르는 양수와도 같은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죽음의 자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시원적 공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지 물끝」 연작은 죽음과 소멸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만가(輓歌)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바람 불면 가리라 바람 불어 비 그치면 떠나가리라 마주 떠도는 산과 강을 발바닥으로 지우며 소리 죽은 물고기를 따라가리라 등두등 아리랑 아리랑 열두 굽이 참고 넘는 마음 고개 오늘은 멀리 물을 벗어나는 바람소리 낮게 더 낮게 자갈밭에 물 빠지는 소리.

- 「명지 물끝·4」 전문

물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낙동강 줄기를 통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삶의 흔적을 그리고 있는 이 시는, “낮게 더 낮게 자갈밭에 물 빠지는 소리”와 같이 죽음의 관념성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명지”는 부산과 김해의 중간에 위치한 낙동강 끝마을로 강과 바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실제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죽음과 삶이 마주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다시 말해 물의 끝이라는 죽음의 의미와 바다의 시작이라는 삶의 의미가 비로소 만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모래무덤 하나 둘 어허 넘자 어허 넘어 물에서 물로 하늘 밖으로 내 목젓 마른 자리 발톱을 세워 훌훌이 날아가는 붉은 물떼새”(「명지 물끝·8 - 고 김현준」)에서처럼 신산한 삶의 고통을 뒤로 하고 망자의 넋을 어루만지면서도 새로운 삶의 세계로 비상을 꿈꾸는 긴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의 강」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의 시에서 “강”은 “무덤”을 이루고 있다. 즉 “물”과 “무덤”은 동일한 이미지로 모성적 공간으로서의 근원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 참 무덤도 많지만 이곳같이 물소리 함께 거느린 무덤들은 유별나다”(『가을 악전산』 뒷표지)는 말을 통해 “물”과 “무덤”이 공존하는 장소의 “흔치 않은 즐거움”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에게 “무덤”은 한 잔 술을 나누며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나누던 “그리운 酒幕”같은 친숙한 삶의 공간인 것이다.

산그늘 하나 따라잡지 못하는 걸음이  
 느릿느릿 다가서는 거기,  
 주막 가까운 北邙에 닿아라.  
 東으로 머리 뉘이고 한 길 길이로 다져지는 그대  
 도래술 성긴 뿌리가 새음을 가리고  
 나직한 물소리 鼓膜을 채워 흐른다.  
 입안 가득 머금은 어둠은 차마 놀 주랴.  
 마른 명주 輓章 동이고 비틀비틀 찾아가거니  
 흐린 잔술에 깨끗더미처럼 흔들리는 白頭.  
 그대의 下棺을 엿보는 마음이  
 울음을 따라 지칠 때,  
 고추짱아 고추짱아 한 마리 헤젓는 가을 하늘 저 끝.

- 「그리운 酒幕·1」 전문

“그리운 酒幕”은 죽음의 성소(聖所)이다. 세상살이의 느릿한 걸음이 쉼터를 찾아 다가서듯 지친 삶의 끝을 뒤로 하고 “東으로 머리 뉘이”는 “北邙”이다. “입안 가득 머금은” 술은 “어둠”이고 “천소리 마른소리 다 모여서”(「그리운 酒幕·2」) 부르는 노래는 만가(輓歌)이다. 결국 “그리운 酒幕”은 산자와 죽은자가 술 한 잔 돌리며 마주하는 “무덤”을 형상화한 것으로, ‘죽음’에 내재된 ‘축제성’에 대한 발견을 통해 삶의 힘을 새롭게 생성해내는 근원적 공간을 형상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무덤”은 죽음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박태일에게 “무덤”은 관념화된 죽음의 세계를 경험적 세계로 재해석하는 지리학적 의미를



지닌다. 그는 “무덤”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떠들면서 삶과 죽음의 관념성을 지워 버리고 흙으로 변해 버린 삶의 구체성과 직접 만나게 된다. 이처럼 “무덤”이 구체적 사유의 방향으로 변모한 것은, “어느 해 봄 邑內 가는 신작로 아홉 고개를 넘고 大郿城 아래터까지 따른 할아버지 꽃상여”, “다음날 발가슴이 동무를 구비진 물밑에 거꾸로 잠재운 뒤 나는 강으로 나가는 푸른 防川길을 영 잊었다”(「文林里」)에서처럼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친구의 죽음에 대한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실제 체험이 크게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절제된 목소리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그의 시세계가, 세 번째 시집에 이르러 감성의 폭을 견디지 못하고 주관성의 세계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삶의 충격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승에 누우시고  
 아버지 저승길 가신다 흰 두루막  
 어느 저잣거리 갑신 숨을 고르시며  
 아버지 즐기던 돼지국밥 말고 계실는지  
 황토 축축한 공작을 내려오면  
 가까운 능선 먼 능선이 발목을 때리고 목을 차는데  
 한입에 달려드는 황강 너른 굽이  
 붉은 맨발 저 물길은 언제 적 서러움인가.

- 「아버지 누우시다」 중에서

“모두들 아버지를 놓치고 허둥거릴 때마다 “문득문득 떠올라 환하신 아버지”(「아버지 목마르시다」)는 아직도 그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주는 커다란 지주이다. 이 때문에 “아버지 저승길”을 따라가는 그의 목소리는 “축축”히 젖었고 “서러움”이 물밑 듯 밀려 올 수밖에 없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죽음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그의 시는 죽은 아들과 어머니의 만남을 절창으로 표현하고

있는 「젓밥」, 지아비를 잃고 김해장에서 그날그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김해군 주촌면 내삼 관동떡」, 지아비의 제사를 지내는 아낙의 목소리를 제문형식으로 표현한 「박복한 이 아낙은 내 번 절하고」 등 도저한 죽음의 지리적 공간을 한풀이하듯 노래하고 있다. 즉 “물”과 “무덤”의 원형적 의미에 기대어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의지를 찾아가는 지리학적 상상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가 꿈꾸는 세계는 막연한 피안지향성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를 매개로 한 지리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문명적 가치에 의해 도발되는 미래적 비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 가치를 닮은 반근대의 자리에 놓인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근대성(modernity)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적 경향에 대한 반성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근대성의 부정적 징후를 거슬러 “물”과 “무덤”의 원형성과 실존성을 통해 ‘신생(新生)’을 꿈꾸는 서정적 비전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 5. 마무리

문학은 특정한 환경에서의 인간적 체험을 묘사한다. 체험이란 우리가 아는 현실과 우리가 조성한 세계에 대한 의미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감각, 감정, 지각, 인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시각, 후각, 촉각을 통하여 어떤 세계를 의식하고, 언어, 이미지, 비언어적인 상징을 사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세계를 구성한다. 과학에서의 환경이 인간 유기체와 고립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것이라면, 문학에서의 환경은 인간적 체험과 분리되지 않는 유기체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학지리학은 문학작품을 통해 개인과 인간집단의 체험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박태일의 시는 환경(세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풍경을 그가 터를 닦고 살아가는 지역 속에서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첫째, 지

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외되거나 잊혀져버린 역사지리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터전인 지역과 현실에 대해 역사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둘째, 중심의 논리와 권력의 횡포에 짓눌려 변방으로 밀려난 소외된 지역의 일상적 삶의 고통을 지리학적 상상력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물”과 “무덤”의 원형적 공간을 통해 죽음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친화력이 오히려 삶의 근원적인 힘을 생성한다는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유형이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그에게 역사, 소외(지역), 죽음의 문제는 하나의 의식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김해군 주촌면 내삼 관동댁」에서처럼 그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태일은 자신의 시세계가 “집과 길 그리고 무덤이 따뜻한”<sup>10)</sup> 곳을 지향하고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의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토대는 사라지고 잊혀진 것에 대한 발굴이요 복원에서 비롯된다. “곳 곳 벽 허물어지고 발걸음 꿩진 마을”의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는 것이 그의 시의 여정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머리에서 무작정 그려지는 관념적 상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를 가로지르는 구체적 현실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문학지리학에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세 번째 시집을 내면서부터 ‘길’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지닌 허무함과 한계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길’은 유한한 삶의 지도를 그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원적인 삶의 문제와 인간의 정서를 모두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길’은 오히려 ‘나/너’를 구획짓는 또 다른 폭력적 경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징후를 이미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드디어 ‘길’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하는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길’에 대한 집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공간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10) 「시인의 말」, 제26회 국제문예광장 팸플렛, 1995년 6월 29일.

그리움엔 길이 없어  
은 하루 재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독길 한끝.

- 「그리움엔 길이 없어」 전문

그는 '길 없는 그리움'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리움엔 길이 없어/은 하루 재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홀로 주저앉은 독길 한끝"에서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기다리는 모습은 바로 시인의 자화상이다. 길 없는 그리움의 실체인 "그대"는, 그가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시세계를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 번째 시집 가운데 「풀약」은, 그의 시가 역사·소외·죽음의 지리학을 넘어서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예감하게 한다. 따라서 "뼈마디 곳곳에 통마늘 든 나날" "이 지랄같은 병에는" "산에 들에 저 풀나물/어떤 놈이 내 약 될꼬"("풀약")라고 말함으로써 문명의 병폐가 인간을 위협하는 현실의 고통을 '자연'의 힘으로 치유하려는 생태학적 시각을 표방하고 있다.<sup>11)</sup> 그는 이미 "근대 자본주의의 생산과 효율 논리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생태 위기 문제에 중요한 대항담론으로 마련되고 있는 생태시의 많은 부분이 장소시라는 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sup>12)</sup>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장소시의 지리학적 상상력과 생태환경시의 생태학적 상상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의 시가 새롭게 출발할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임에 틀림 없다.

11) 그는 시인이 기꺼이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생태학적 감수성을 널리 퍼는 일이라고 하면서, 시는 진공의 공간을 헤엄치는 순수한 창조물이 아니라 사회 치유의 실천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쓰레기 덜 만드는 문학'을 위해 할 일과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앞서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그의 시세계의 방향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박태일, 「1990년대 한국시의 공간과 그 전망」, 앞의 책, 349~350면.

12) 박태일, 앞의 대담, 35면.

▶ 핵심 단어 :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장소사랑(topophilia),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 지역문학(Regional Literature), 역사(history), 소외(alienation), 죽음(death).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그리운 주막』, 문학과지성사, 1984.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1989.  
『약쑥 개쑥』, 문학과지성사, 1995.  
『풀나라』, 문학과지성사, 2002.

#### 2. 논저

- 박태일, 「시인의 말」, 제26회 국제문예광장 팸플렛, 1995년 6월 29일.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경남지역문학회, 1998.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박태일·하상일(대담), 「잃어버린 시문학사의 빈 틈」, 『오늘의 문예비평』, 1998년 봄호  
오형엽, 「소리의 음악과 햇살의 광학」, 『풀나라』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2.  
Yi-Fu Tuan(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Yi-Fu Tuan(최지원 옮김), 「문학과 지리학 : 지리학적 연구의 합의」, 『지역문학 연구』 제5호, 경남지역문학회, 1999.  
Yi-Fu Tuan(최지원 옮김), 「장소사랑」, 『지역문학연구』 제6호, 경남지역문학회, 2000.

<Abstract>

## A Study on Park, Tae-il's Poetry and Topophilia

Ha, Sang-i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opophilia of Park, Tae-il's poetry in the viewpoint of literary geography.

As the contemporary geography points to humanistic geography, it is closer to literature. It is the humanistic geography that examines thought, feeling, and geographic behavior of human, related to a place, and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With the imagination of literary geography as such, Park, Tae-il's poetry is deployed in three point of view.

The first, it discovers again historical geography which was alienated and forgotten by a ruling ideology. On the ground of that, a locality and reality, which is base of national community, is examined.

The second, it materializes routine sufferings of locality, which was alienated by a logic of center and oppression of power.

The third, it discovers a present meaning of death through archetypical space of "water" and "grave". So it reveals the paradox that an affinity for death creates a root power of life on the contrary.

Of course, it isn't thought that this three type is to be divided distinctly and be separated perfectly. As the problem of history, alienation(locality) and death completes a kind of system of consciousness in his case, so his poetry is more impressive.

As mentioned above, topophilia of his poetry acquires the meaning of a history of literature, in that it is a new space of interpretation, in which poet discovers a inside scenery united with the world(atmosphere), namely lyrical vision.